

지역 소식통

정읍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

정읍시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약 36억원 규모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서 마을안길 포장과 배수로 개선 등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선정과 실시설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총 170개 사업으로 진입로와 배수로 정비 114개소에 31억원을 투입하고, 모정 신축과 보수 56개소에 5억원이 투입된다. 3월 초 일제히 공사에 발주·착공해 영농기 이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시설(토목)직 공무원 4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합동 설계단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한발 앞선 합동 설계단 운영을 통한 재정 신속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기사업 허가 일괄처리

부안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대양광)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의제처리(일괄처리)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사업 허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득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를 받아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득했으나 개발행위 불허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금전적 손해와 군 행정력 낭비 및 대군민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고 동시에 개발행위 검토를 진행한 후 개발행위 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기사업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계획을 시행기로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불량 차량 운행사고 줄인다

정읍시,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 운행 정지·건설기계 등록말소 계획

정읍시가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건설기계의 도로 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제1회 자동차·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시는 이달 초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의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등록말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정기검사 미수검 사유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 운행 금지 위반 차량 △자동차·건설기계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 법령 위반 운행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관련해 시는 지난달 22일 관련 기

관·단체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시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항구적으로 금지해 성능 불량 차량의 운행사고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권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법률안의 정부 발의와 의원 발의를 국토교통부와 지역 국회의원에 각각 건의했다.

또, 관련 법령에 규정된 행정명령과 행정처분, 행정안내 등과 연동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10% 이상 향상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통합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보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 불법 부착물 제거 등 법령이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해 도로 안전 운행의 행복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는 총 2,668만대(자동차 2,555, 건설기계 13)다.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건설기계는 200만대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건설기계는 115만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범 검거 관제요원 두 명과 안전총괄과 생활안전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안서, 범죄예방 공로 감사장 수여

보이스피싱 4건 사건에 도움

부안경찰서(서장 이재경)는 보이스피싱범 검거 관제요원 두 명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로 안전총괄과 생활안전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보이스피싱 4건의 사건에 대하여 관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 최근 보이스피싱범 죄수법들이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인 검거, 범죄 및 사고 확산 예방,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사건·사고 현장 증거 제

공 등에 2020년 539건의 영상을 제공해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3월에 개소한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총 614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관제요원 12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방범,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관내 구석구석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안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범인 검거와 위법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안전한 군민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민·관 합동 신속 제설작업 호평

전문건설협회 중장비 동원 제설작업 주민불편 최소화

부안군이 민·관 합동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 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최고 40cm의 폭설이 내린 부안읍내 제설작업에 부안군 전문건설협회의 중장비를 지원받아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해 주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했다.

군은 4일간 40cm의 폭설로 시가지 교통혼잡과 관내 주요도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제설장비 10여대를 동원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했으며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군청 전 직원이 읍내 인도변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또 제설장비가 부족해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도면에 제설차량을 지원해 도서지역 주요도로 제설작업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최고 40cm의 폭설이 내린 부안읍내 제설작업에 제설장비 10여대를 동원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했다.

을 완료했다. 특히 부안군 전문건설협회는 중장비 10여대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해 교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눈으로 인한 이중

고를 겪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욱)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43종

1,314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10,742개 농가가 12,666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판소리전수관, 강사 위촉장 수여

고창군 판소리전수관이 올해 상설국악교실 6개 과목(판소리, 가야금, 고법, 대금, 농악, 한국무용) 강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고창군에선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우리 소리를 이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설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판소리 명창공연, 판소리 최고 권위의 동리대상 시상,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 등을 열고 있다.

특히 해마다 남녀노소 다양한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면서 고창군민들의 삶속에서 우리가락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지리가 되고 있다.

상설국악교실은 주 3회(월~수) 오후 3시, 4시, 5시, 7시에 판소리반, 가야금반, 고법·장단반, 대금·단소반, 농악반, 한국무용반 등 6개반의 수업이 이뤄지며 초등학교생부터 일반인까지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다.

상설국악교실 수강료는 성인 월 1만



원, 학생 5000원이다. 상설국악교실 참여를 희망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문화관광과(560-8065)로 연락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